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부 39

### 양이정(養怡亭)

작년 9월 공예태후의 친정아버지 정안공 임원후가 유명을 달리했다. 송악산에 붉고 노란 단풍이 물들고 있을 때였다. 임종을 보지 못한 공예태후는 탐진 청자찻잔에 차를 따라놓고 눈물을 흘렸다. 개경 왕실에서 고향 장흥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의종은 공예태후의 비통한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의종은 장흥부 임원후 집에 장흥부사와 도감현 감무, 탐진현 치소 수령을 시켜 조문하도록 지시했다.



그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으므로 의종은 궁궐에서 장경도장(藏經道場)을 열었다. 10월 을해일에 선경전(宣慶殿)에서 대장경을 모시는 법회, 즉 장경도장(藏經道場)을 베풀었던 것이다. 의종이 친히 대장경에 향을 올리는 행향례(行香禮)를 하자 신하들은 일제히 엎드려 절을 했다.

현종 이후부터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이어져온 장경도장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달랐다. 의종은 대장경을 올린 단(壇)에 송나라에서 구해온 침향을 올렸으며, 공예태후의 아버지 정안공의 위패를 봉안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임오일에는 내전(內殿)에서 승려 5백여 명을 불러 만발공양, 즉 반승(飯僧)을 베풀었다. 공양을 받기 전에 5백여 명의 승려들은 일제히 정안공의 명복을 빌었는데, 공예태후는 큰 위로를 받았다.

의종의 효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예태후가 좋아하는 탐진 청자기와로 정자를 지어 효도하고자 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청자기와 정자가 몇 달 후면 개경에 세워질 터였다. 청자운반선이 청자기와를 싣고 북풍이 잦아들기를 기다린다는 보고를 장작감 판사에게 들었던 것이다. 탐진 사당마을 가마에서 구운 청자기와를 선적한 채 날씨를 살피고 있다는 보고였다. 의종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의종은 또 다시 정월 경진일에 목친전(睦親殿)으로 나아가 친동생인 승통 충희(沖曦) 등 2백여 명의 승려를 불러서 청자운반선의 무사항해를 위해 재를 올리고 복을 빌었다.

의종이 큰 재를 지내자 장작감 판사는 내심 초조해졌다. 사실대로 보고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내전으로 들어가 의종을 알현했다.

“폐하, 청자운반선이 늦어지는 것은 계절풍 때문이옵니다.”

“계절풍이 어쨌다는 것이오?”

“지금처럼 삭풍이 불 때는 배가 떠밀려 개경으로 오지 못하고 명주 쪽으로 표류할 수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온단 말이오?”

“삭풍이 잦아드는 이른 봄 이월에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때 온다면 정자는 언제쯤 볼 수 있소?”

“2월에 시작하면 햇불을 켜고라도 밤낮으로 일한다면 4월에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판사 말을 믿고 기다리겠소.”

“폐하께서 반승을 여러 차례 베푸셨으니 배는 무사히 항해할 것입니다.”

“작년에 베푼 장경도장이나 내전에서 가진 반승은 정안공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었고, 올 정월에 베푼 반승은 청자운반선의 무사항해를 위한 것이었소.”

“폐하의 뜻을 여러 호법신(護法神)들이 지켜줄 것입니다.”

이밖에도 의종은 절에 자주 행차하여 어떤 때는 한 달을 묵고 돌아오기도 했다. 궁을 비운다는 신하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월 신묘일에도 국청사에 참배 갔다가 곧 경천사로 행차했다. 그때 승지가 “폐하께서 거처하는 장소가 협소하니 사관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어떠하겠사옵니까?”라고 아뢰니 의종이 “사관이란 나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니 잠시라도 내 곁에서 떠날 수 없소.”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만큼 의종은 절에서 복을 받고 스님들의 법문 듣는 것을 떳떳하게 여겼다.

이윽고 매화가 꽃을 피우는 이른 봄이 왔다. 매화꽃을 보고 가장 반기는 사람은 장작감 판사였다. 마파람이 기지개를 켜고 삭풍이 잦아들면 탐진 미산포에서 청자운반선이 뜰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청자운반선이 곧 개경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소식을 탐진에 내려가 있던 장작 구실아치가 전했다. 산사 구실아치의 어머니가 별세하여 청자운반선에 승선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미리 올라왔던 것이다. 장작 구실아치가 장작감 판사를 찾아와 소식을 알렸다.

“판사 나리, 산사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만침 올라왔습니다.”

“안됐네. 탐진에서 고생이 많았네.”

“대구소 향리와 도공들이 도와주어 청자기와를 잘 맨들었시다. 청자 운반선이 개경으로 올라올 일만 남았습니다.”

“배는 언제 올라올 것 같은가?”

“바다가 잔잔해졌으니까니 봄바람을 타고 지금쯤 떠났을 것 같습니다.”

“잘됐네. 매화꽃을 본 뒤 희소식을 들을 것만 같았다네.”

“대구소 향리는 어떤 사람이던가?”

“탐진 도공들한테 존경을 받고 폐하께서 원하는 일임을 알고 정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탐진에 그런 향리가 있다니 그것은 탐진 사람들의 복이네.”

“제 눈으로 봐도 탐진 사람들의 복입니다.”

“특히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향리 도움으로 도공들이 최상품 청자를 맨들기 때문입니다.”

장작감 판사는 청자운반선이 곧 출발할 것이라는 보고를 듣고 비로소 안도하는지 미주알고주알 물었다. 장작 구실아치가 볼 때는 탐진에 뿌리박고 사는 토성의 유지들이 서로 돌아가며 향리를 맡기 때문에 다른 토성의 향리 업적에 지지 않겠다는 경쟁 심리에다 애항심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탐진 도공들은 하나같이 양민 출신으로 문식이 있고 나름대로 천하제일의 청자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생활수준도 농사짓는 농사꾼들보다 훨씬 앞섰다. 농사꾼들은 거친 잡곡밥만 먹지만 도공들은 봄가을 가마를 때는 시기나 명절 때는 쌀밥에 돼지고기 등을 즐기며 살았다. 도공들 생활수준은 개경의

웬만한 벼슬아치 못지않았다.

“청자기와 정자가 들어서고 나면 폐하께 자네의 공을 반드시 알리겠네.”

“고맙습니다.”

“구실아치를 그만 둘 때도 됐어. 이제 특진해서 품계를 받을 때가 된 것 같네.”

“판사 나리, 소인은 구실아치로 살면서 현장에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소인을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마우시나 소인은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다.”

“허허허. 다른 구실아치들은 서로 벼슬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네는 다르구먼.”

장작 구실아치의 말은 진심이였다. 장작감 안에서 탁상 공론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궁을 짓고 수리하며 땀 흘리는 것이 그의 성격에 맞았다. 더구나 장작감 벼슬아치들은 대부분 겸직이였다. 태의나 군관들이 있었는데, 소속된 관아에서 마땅한 벼슬을 받지 못하고 장작감의 한 자리를 겸직했던 것이다. 그러니 장작감 본래의 일은 구실아치인 장작이나 산사가 하기 일쑤였다. 장작과 산사 두 구실아치가 탐진에 내려갔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였다.

청자운반선은 열하루 만에 개경 벽란도에 도착했다. 새끼줄로 친친 감은 청자기와 묶음들은 즉시 개경 궁궐 밖까지 수십 대의 수레에 실려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청자기와 운반 총책은 공부상서가 맡았다. 장작감 판사의 직속상관인 공부상서가 책임자가 된 것은 의종의 뜻이였다. 경비군사들을 거느리는 상장군은 부책임자로 몹시 긴장했다. 사고가 나면 그도 역시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공부상서는 수레 앞에서 지휘를 했고, 수레 행렬 중간에서는 상장군이 경비군사들을 독려했으며, 장작

감 판사는 맨 뒤에서 지켜보았다.

이동하는 동안 파손을 막기 위해 수레 바닥에는 짚을 두껍게 깔고 군사들이 수레를 호위했다. 도로에 바위가 나타나면 수십 명의 군사들이 수레를 들어 올려 옮기기도 했다. 특이한 구경거리였다. 개경 양민들은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와아! 와아!”

“저게 뭣입네까?”

“보물이니까니 지푸라기로 감쌌지비.”

양민들은 수레에 실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박수를 쳐댔다. 경비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지나가는 수십 대의 수레 행렬이 장관이었던 것이다. 수레에 실린 청자기와 이동은 양민들에게는 기밀이었다. 수레에 탐진 청자기와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의종에게 불만이 많은 문신들이 무뢰배를 동원해 횡방을 놓을 수도 있고, 도적떼가 급습하여 강도짓을 할지도 몰랐다.

마침내 청자기와 묶음들은 하루 만에 무사히 개경 궁궐 밖 정자가 세워질 자리로 옮겨졌다. 연못은 이미 작년 가을에 완성되어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차 있었다. 개울물을 끌어들이는 수도도 잘 설치되어 용머리 형상의 수문(水門)에서는 물이 팔팔 쏟아졌다. 장작감 판사가 공부상서에게 보고했다.

“상서 나리, 궁궐 목수들을 총동원하여 내일 이른 아침부터 양이정을 짓겠습니다.”

“폐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보이시는 정자이니 이른 시일 내에 완공

하십시오.”

“사월 초하루면 완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정자는 양이정만 짓는 것이 아니라 네 동이라고 하지 않았소?”

“예, 그렇습니다. 양이정과 태평정은 청자기와를 얹고 나머지 한 동은 송나라에서 사신들이 가져온 종려나무 잎을, 또 한 동은 토기와를 얹기로 했습니다.”

종려나무 잎도 청자기와처럼 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송나라 것이면 무엇이든 호감을 가지는 문신들의 건의가 있어서 양화정(養和亭)은 종려나무 잎으로 지붕을 덮기로 했던 것이다. 청자기와를 얹겠다는 양이정과 태평정은 의종의 뜻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다. 공부상서가 말했다.

“잘 됐소. 청자기와 정자야 폐하의 뜻이고, 종려나무 잎 지붕의 정자는 송나라 사신으로 갔다 온 신하들의 뜻이니 말이요.”

“종려나무 잎의 수명은 청자기와보단 못할 것입니다.”

“그거야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요. 방금 판사가 한 말은 어디서도 발설하지 마시오. 공연히 구설수에 오를 수 있소.”

“예, 상서 나리.”

공부상서는 송나라 사신으로 갔다 온 신하들과 마찰을 꺼려했다. 아무리 송나라 물건들이 좋기로써니 그들이 종려나무 잎까지 가져왔을 때 마음속으로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공부 소속의 관원들이나, 특히 장작감의 구실아치들은 종려나무 잎으로 지붕을 얹는다면 한두 해 안에

또 갈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혀를 찼다. 어쨌든 공부상서와 장작감 판사는 종려나무 잎 지붕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장작감 판사의 지휘로 궁궐 밖의 태평정과 양이정, 관란정과 양화정은 3월 그믐날 전까지 말끔하게 완공했다. 그랬기 때문에 4월 초하루인 오늘 의종과 공예태후, 그리고 문하시중 이하, 각부 상서와 시랑, 공사 지휘와 감독을 맡았던 장작감의 관원과 구실아치, 의종이 작년 이후 행차했던 흥왕사, 국청사, 경천사, 천수사의 승려, 개경의 양민들이 모여 회향(回向)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꼭두새벽부터 승려 수백 명이 1백여 명씩 무리로 나누어 태평정과 양이정, 관란정, 양화정 앞에서 독경을 시작했다. 독경 소리를 듣고 개경 양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태평정 좌우에는 이미 심은 화초와 보기 드문 과일나무에 연둣빛 새싹들이 피어 있었다. 태평정 아래 연못가에는 관란정이, 맞은편에는 양이정이, 그 남쪽에는 화기(和氣)를 기른다는 이국적인 선풍(仙風)의 양화정이 완공돼 있었다.

양화정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옥돌을 다듬어 환희대(歡喜臺)와 미성대(美成臺)를 쌓고, 기암괴석을 모아 신선(神仙)의 산을 만든 다음 먼 곳에서 개울물을 끌어 만든 작은 인공폭포가 있었다. 그런데 양민들은 양화정 앞으로 가기를 꺼려했다. 의종에게 아부하는 신하들이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양민에게 진귀한 물건이 있지만 하면 왕명을 핑계대고 탈취해 갔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로 양민들이 우루루 몰려 있는 곳은 태평정과 양이정이었다. 선풍을 억지로 꾸며낸 양화정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반대로 태평정과 양이정 앞에는 동트기 전부터 양민들이 북적거렸다. 좋은 자리에서 청자



기와가 엮힌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궁궐의 내전이나 편전, 왕비별궁 등 모든 전각 지붕은 거무튀튀한 토기와 일색인데, 태평정과 양이정 지붕은 보석 같은 청자기와였던 것이다.

특히 양이정 팔각지붕은 연못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이윽고 아침 해가 빛을 뿌리자 청자기와가 반짝거렸다. 양민들뿐만 아니라 벼슬아치, 승려 모두가 청자기와를 처음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치 고귀한 청자 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았고, 아침 햇살이 난반사하는 청자기와들은 자체 발광을 하는 듯 눈부셨다. 연못에 어린 양이정의 그림자 역시 용궁에 있는 정자를 연상케 했다.

승려들의 수좌가 큰 교자상에 떡과 음식, 과일과 술을 진설했다. 이로써 회향 의식을 치를 준비는 다 끝난 셈이었다. 잠시 후, 상장군이 소리쳤다.



“폐하께서 행차하신다! 태평정과 양이정 사이에 있는 양민들은 뒤로 물러서시오!”

“스님들은 양이정 앞에 모여 주시오!”

“관원들은 양쪽으로 줄을 서서 도열해 주시오.”

“군사들은 빈틈없이 경계하라!”

그때 태평정 너머로 의종의 행차가 보였다. 상장군이 회양 의식 현장에서 점고하고 있었으므로 바로 밑의 대장군이 행차 선두에서 길잡이를 하고 있었다. 의종의 행차는 태평정을 지나 양이정 앞에서 멈추었다. 대가에서 의종이 내리자 승려들이 일제히 독경을 멈추고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자 벼슬아치들과 양민들도 따라서 했다. 잠시 후에는 공예태후의 가마도 들어왔다. 공예태후가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의종이 걸어가 맞이했다.

“태후마마를 위한 양이정이오니 한 번 올라가 보시지요.”

“폐하가 말씀하신 대로 탐진 청자기와의 얽은 정자군요.”

“태후마마께서 몸을 잘 돌보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라는 뜻을 양이정에 담았습니다.”

“폐하의 효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입니다.”

“언제든 이곳에 오시면 마음의 위안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정자입니다.”

“폐하께서도 자주 이곳을 찾아 머리를 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도 하겠지만 정사를 보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정자 이름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평정, 양이정, 관란정, 양화정 모두 모두 뜻이 깊고 거룩합니다.”

공예태후는 의종을 따라서 양이정에 올라 한 바퀴를 돌고 내려왔다. 스님들이 독경을 다시 시작했다. 의종이 좋아하는 <화엄경>을 일제히 독경했다. 의종은 2년 전 신하들을 데리고 홍왕사에 가서 불경 가운데 <화엄경>을 밤낮으로 열람하기도 했던 것이다.

회향행사는 사찰의식으로 했다. 스님들의 독경이 끝나자 승통 현희가 단상에 올라가 왕권이 천추에 빛나고 나라가 융성해지기를 바라는 법문을 했고, 의종과 신하들은 눈을 감고 경청했다.

이어서 의종은 태평정과 양이정, 관란정, 양화정을 지은 이유를 제불 보살과 여러 호법신들에게 고했다. 양이정과 공예태후의 사연을 말하다가는 감격에 겨운 듯 잠시 침묵했다. 눈을 감고 의종의 고축(告祝)을 듣고 있던 공예태후는 눈물을 흘렸다. 손수건을 꺼내 아침 햇살을 가리고 있는 듯했지만 사실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의종은 연못을 파고 정자를 짓는 일에 종사한 모든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하사했다. 어느 새 회향행사는 잔칫날처럼 바뀌어 양민들은 밤늦게까지 연못가에서 봄바람을 쐬며 놀았다. 공예태후는 태후별궁의 궁녀들이 만들어 놓은 떡을 양이정으로 보냈다. 밤에는 궁중무희들이 나와 횃불 아래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의종은 대취한 채 태후별궁으로 찾아왔다. 양이정을 지어 어머니 공예태후에게 바쳤으니 대취할 만도 했다.

“태후마마, 오늘 같이 좋은 날 어찌하여 우셨습니까?”

“눈물은 기뻐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는 법이지요.”

“오늘은 기뻐습니까, 아니면 슬펐습니까?”

“폐하, 오늘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태후마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저도 더욱더 기쁩니다. 이제는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양이정으로 가시어 마음을 달래시지요.”

그러나 공예태후는 고개를 저었다. 의종이 실망한 듯 고개를 치켜들고 말했다.

“태후마마께서는 탐진 청자를 보면 고향이 생각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청자기와로 정자를 지었으니 이보다 더 뜻 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폐하의 마음을 모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양이정 말고 원하는 다른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 탐진을 잊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는 고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폐하께서 나를 위한다고 혹시나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민폐라니요?”

“양화정은 양민들에게 원성이 자자합니다. 신하들이 양민들이 가지고 있는 진귀한 물건들을 빼앗아 양화정을 꾸몄다고 합니다. 양이정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양이정에는 절대로 그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태후마마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정자에 올라서 선정을 펼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후마마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폐하, 그것이야말로 명군이 되는 길입니다.”

의종은 공예태후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며칠 뒤 임인일에 의종은 관란정으로 행차하여 참형과 교형 이하의 죄수들을 석방하고, 대간을 모함했다고 하여 파직당한 의종의 최측근이었던 환관 정함(鄭諫)을 함문 지후로 재임명했으며, 관란정 관리에 힘쓴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다.<계속>